

전문가와 거주자 인식 관점에서 본 한옥의 특성과 적용[†]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Han-Ok in the Perception of their Residents and Experts

이민아*

국립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Lee, Min Ah*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i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Han-Ok based on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Han-Ok that experts perceived.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of 7 experts and 24 Han-Ok resi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arrangements are primarily emphasized and provide emotional stability for the residents. Placement on the ground, a suitable scale, appropriate openings and closures, hierarchical spatial system and a spatial relationship provide a feeling of comfort and protection. Second, the spaces and the materials of Han-Ok are considered the representative elements providing functionality and health.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area makes the air naturally circulate and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soil, and paper have the function as natural ventilation, heat storage, and in the prevention of various illnesses. Third, residents in modern society put more of a value on experiences of natural environments that are usually impossible in the city. The simple and incomplete characteristics in using color, materials, and form, provide a culture of story telling and a leisurely lifestyle. Fourth, the cold and spatial inconvenience of Han-Ok are solved by partially using modernized equipment and material. The functionality of spatial systems in Han-Ok needs to be promoted in order to change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cold in Han-Ok.

Keywords: characteristics of Han-Ok, perceptions of the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the residents

I. 서론

최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과 건강 키워드가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에서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원에서 주생활을 영위하면서 엄격한 직주의 분리를 시도한다든지 주말농장을 이용하여 여가

를 활용하고, 이외 각종 건강여가시설에서의 체험활동 등을 통해 생활의 여유로움을 찾고 있다.

한편, 국가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보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각 분야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친환경과 건강열풍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옥도 이에 대응하여 각 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2009-0065436)

* Corresponding author: Lee, Min Ah

Tel: 063-469-4625, Fax: 063-469-4621

Email: leema@kunsan.ac.kr

역별로 기존의 한옥을 보존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용도를 모색하고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공사는 한옥의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한옥형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민간건설업체도 의장부에서 한옥 인테리어를 적용한 공동주택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생활의 편의성과 한옥의 건강성 및 친환경성은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전통상품이 아닌 그들의 거주지로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옥의 현대화³⁾가 본격화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한옥의 어떤 특성을 유지 혹은 적용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로서 한옥의 고유성과 특성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이나 대중화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대인의 편의만을 고려하기에는 전통 보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으며, 전통요소를 추상적으로 변형 해석하여 적용하는 작가적 방식도 다소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의 조성 및 한옥의 현대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건축방식이나 재사용, 공간의 배치 및 형태 등에 있어 전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면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현대건축이나 한옥건축과 관련된 전문가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한옥거주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이들의 한옥 생활의 동기와 한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한옥의 현대화의 방향 설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 실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옥의 장점 및 특성과 현대건축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대인들, 그 중에서도 실제 한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통 한옥의 건축요소를 정리하였다. 단지 한옥 전문가와 거주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전통공간이나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내재된 가치, 상징적 의미, 정서와 철학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인의 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한옥의 현대화 및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특

성과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정부와 민간건설업체가 현대 건축물에 전통한옥의 요소를 적용 시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전통의 본질 측면에서 한옥의 현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문헌고찰

1. 한옥의 특성

대부분 문헌에 나타난 한옥의 특성은 한옥의 공간 측면에서 내재된 가치와 개념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한옥공간의 배치를 설명하는 특성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개별공간의 개념적 특성을 보고, 거주자의 생활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과 물리적 특성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통합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전통한옥의 전체적인 공간배치 측면에서 한옥은 채 자체의 평면이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시각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채 내부의 서열에 따른 위계성과 영역성으로 엄격한 분화를 보이고 있는 등(김연정, 2000) 자유로운 듯 보이지 않는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간연계 측면에서는 담장과 행랑이 표현하는 폐쇄성, 반면 각 채 내부의 벽체를 구성하는 들어열개 창호, 대청과 방 사이의 분합문과 방과 방사이의 미세기문의 개폐에 따라 표현되는 공간의 개방성과 가변성, 융통성, 그리고 공간의 틈마루와 대청 등의 매개공간을 통해 방, 대청, 마당, 자연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확장성이 있다(박성재, 정무웅, 2006). 연속성은 외부의 원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차경, 바닥의 수직적 레벨의 변화, 단의 변화를 이용한 공간의 위계구성, 공간의 시각적 확장 등을 특성으로 하며, 또한 문의 개폐 등에 의해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탈경계성, 중첩성(김동영, 2008)이 있다. 다음으로, 한옥 내 개별공간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하나의 공간은 그 특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성격지어진다는 무자성적 특성, 이는 다른 말로 퍼지성 혹은 여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한국전통건축연구회, 2007). 다용도적 특성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성격이 형성되고 치장되는 것으로 마당, 방, 마루 등의 공간이 이러한

3)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한옥의 현대화 대상은 현대사회에 재구성되는 한옥마을 내의 도시한옥, 일반 도시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한옥의 요소가 적용된 현대한옥, 최근 건설이 고려되고 있는 한옥아파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 간의 고유 특성을 적절히 중재하여 개개의 공간적 성격을 유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특성인 사이공간성은(한국전통건축연구회, 2007), 매체공간, 회색공간, 매개공간, 전이공간 등으로도 일컬어지는데 계단, 대청, 마당, 툇마루, 방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 외에 한옥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주변의 자연환경, 내부의 거주자 생활환경 및 시대의 가치관, 사회문화적 특성이 융합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언급된 공간배치 및 개별공간의 특성들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먼저, 의장적 측면에서 소박성은 무기교의 기교라는 말로 표현되는 특성이다. 자연적 형태를 고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공, 초석에 막돌사용, 휘어진 부재 등이 그 예로서(한국전통건축연구회, 2007), 솔직한 구조미와 불완전성, 단순화한 문양을 추구하면서 정서적인 감흥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를 위한 친인간적 특성으로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 가구, 문턱, 천장 등의 높이와 내향적구조(마당, 마루를 중심으로 내적으로 개방), 융통적 구조(다용도성, 공간의 경제성), 가변적 구조(미닫이문, 들어열개문, 들어열개벽 등), 개방적 구조(공간의 연속성, 상호개방)를 들 수 있다.

전통한옥의 자연친화적 특성은 자연지형에의 순응, 자연을 수용하는 공간배치와 공간구성, 자연스러운 재료와 색채의 사용, 주변 환경에 대한 태도 등의 과정이 모두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된다. 주로 공간구성이나 재료적 측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기후조절, 맞통풍, 실내공간의 흐름, 처마, 남향배치, 다중창호, 사이공간, 공간의 연계 및 개방성, 마루, 마당, 천장구조, 벧짚과 기와의 진흙층을 통한 단열, 흙벽의 실내온습도 조절, 창호지의 채광조절, 최소한의 가공 등이 있다(장미선, 이연숙, 2007; 조성진 외, 2004; 한정희, 김자경, 2000).

2. 한옥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한옥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연구는 문화적 측면에서 한옥의 의미를 일반인이나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알아 보거나 한옥건축을 산업화 하기위한 수요자 의식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거나(이창재, 최일, 2010; 진병혜, 2009),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이성

경, 2010)도 소수 있었다. 그 결과를 현대인이 생각하는 한옥의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로 정리하여 <표 1>에 나타냈다. 심층면접의 경우 개방성, 연속성 등의 공간의 배치특성과 용도의 다양성, 사회성 등 광범위한 개념적 특성을 언급하는 반면, 설문조사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건강성, 심미성 등 복합적 이미지가 많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옥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주로 외관에서 풍기는 전통성과 독특한 개성,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친숙함, 안정감과 정체성, 시각적인 심미성과 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재료의 건강성과 자연 공기순환과 같은 기능성 등으로 규정되었다. 한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자연재료의 특성상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내부 설비 및 공간 사용의 불편함, 높은 건축비용, 그리고 좁은 면적과 수납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한옥의 대표적인, 혹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 요소를 추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성경(2010)의 연구에서는 한옥의 특성을 공간, 의장, 재료로 구분하여 각 특성별로 공간은 마당과 마루, 의장은 지붕과 창호, 재료에서는 나무와 흙을 대표 건축요소로 추출하였다. 김지민(2007)의 연구에서는 내부 공간 중 대청과 툇마루, 외형 중에서는 한지가 입혀진 창호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강만호 외(2009)의 한옥 의장요소 선호도 조사에서는 기와지붕, 노출기둥과 대청마루, 한지와 황토마감의 이미지가 강했다.

요약하면, 현대인들은 한옥에 대해 전통성과 아름다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움,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청과 툇마루를 포함하는 마루와 마당, 지붕과 기둥, 창호, 그리고 재료에서는 나무, 흙, 종이를 대표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유지관리나 공간 사용의 편의성, 설비의 현대화를 꾀해야 하며 높은 건축비용과 좁은 면적 및 부족한 수납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김근영(2003)은 현대인들에게 한옥의 이미지는 실제 경험을 통한 스토리나 오래된 고재를 이용한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수선을 통한 현대한옥의 이미지로서 이는 한옥의 건강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사용가치로 이해될 수 있고, 한옥에서 살아온 거주자들에게 한옥은 거래되는 상품이자 재산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다고 하였다.

〈표 1〉 현대인이 생각하는 한옥 이미지

연구자	강만호 외 (2009)	국토 해양부 (2008)	김지민 (2007)	이성경 (2010)	이창재, 최일 (2010)	이표희 (2008)	진병혜 (2009)
조사대상 조사방법	일반인 설문	일반인 설문	일반인 설문	일반인 심층면접	거주자 설문	중고교생 설문	일반인 설문 거주자 우편설문
긍 정 적 이 미 지	개방성			○			
	연속성			○			
	다양성			○			
	사회성			○			
	전통성			○	○	○	○ ○
	개성			○		○	○
	안정감			○		○	
	친숙함			○	○		
	정체성						○ ○
	주변환경 과 조화	○	○	○	○		○
	심미성					○	○ ○
	공간감					○	
	형태성					○	
건강성	○		○	○	○	○ ○	
가능성		○				○	
부 정 적 이 미 지	유지관리 의 어려움	○		○	○		○
	좁은면적/수납				○		○ ○
	재해불안						○
	불편한 공간	○	○	○	○		○ ○
	추위						○
이 미 지	여가편의시설부 족						○
	높은 건축비용			○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한옥을 규정하는 고유 특성과 장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한옥 거주자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 한옥의 특성 중 실무전문가 관점에서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한옥의 특성과 장점 및 정체성에 대한 제고를 위한 기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조사는 거주자의 경험적 관점에서 향후 지속되어야 하는, 혹은 개발되거나 개선이 고려되는 한옥의 특성과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 1차 조사-한옥전문가 대상 기초조사

한옥 실무 작업을 직접 주관한 경험이 있는 7명의 한옥실무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2009년 9월에서 10월 중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무소 소속의 이사급 이상 전문가 5명, 건축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 운영자, 혹은 소속 전문가가 1명, 대규모 현대한옥 시공의 현장소장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1명이었으며<표 2 참조> 연령은 40-50대에 걸쳐 분포되었다. 연구자는 한옥의 개념 및 범위와 장점, 그리고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주로 언급되는 비실용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해당 사무실로 찾아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2) 심층면접 대상 한옥 실무전문가

전문가	A	B	C	D	E	F	G
소속	A건축 설계사무소	E건축 G건축	K대학교 건축과	H건축설계 사무소	H	F건축 문화원	연구소
직위	이사	대표	대표	교수	대표	부원장	대표

2. 2차 조사-도시한옥 거주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2차 조사의 대상은 1년 이상 한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북촌한옥마을과 전주한옥마을의 거주자(한옥 근무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의 고밀도화된 대지에 적당하지 않은 전통한옥보다는 밀집 한옥의 특성을 가진 도시한옥 거주자의 인식과 태도가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요소의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식음공간을 제외한 사무, 의료, 작업, 문화, 숙박공간도 포함하였고, 이 경우 해당 한옥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숙박 혹은 야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주민단체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였고, 이들이 소개해준 거주자 중 면접을 허락한 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 한옥의 개요(주용도, 부용도, 건축면적)
- 한옥에서의 생활(거주, 근무, 작업)을 생각한 동기
- 한옥의 선택, 관리, 개조 시 고려한(혹은 고려하는) 사항
- 한옥생활의 장점과 그 이유
-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과 그 이유
- 한옥에서 생활의 단점과 그 이유
- 면접자 개인사항(연령, 성별, 거주자 수, 거주연수, 다른 주거형태 거주경험)

조사대상 한옥의 개요와 면접자 개인사항을 제외한 5개의 질문은 심층 개방형 질문으로 거주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12월 중 거주자가 원하는 시

간에 진행되었으며, 각 거주자 당 1시간~1시간 30분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거방문이 어려운 경우 외부에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 경우 거주자로 하여금 거주한옥의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재구성하는 식으로 완성하였다. 면접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원 1~2명이 면접사항 녹음 및 기록, 평면도 작성, 사진촬영 등을 수행하였다. 충분히 여유 있는 면접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면접 당시의 특수 상황⁴⁾ 등으로 인해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목구조와 기와지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2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한옥 전문가 대상 기초조사

1) 한옥의 개념 및 범위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으로서 한옥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한옥의 건축구법과 요소 측면이 많이 언급되었고, 공간구성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인 사상과 생활방식 측면에서 한옥을 규정하였다.

먼저, ‘한옥’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1900년대 초 양옥에 대한 다른 말로 만들어진 애매모호한 용어라고 지적하는 한편(전문가 B), 한옥은 목조+가구결구식을 기본으로 지붕에 기와를 얹은 것을 한옥이라 부를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건축구법 측면에서 한옥을 정의하기도 하였다(전문가 E). 한옥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순화되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전문가 A, D), 사회의 인문학적 요소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전문가 D, G)이라고 하였다. 다만,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생산되는 현대 건축물의 장식과 다양한 구법을 경계하고 있으며, 전통의 정신과 자연환경조절 체계를

4) 면접자 본인(자영업 등), 혹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답변을 길게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면접자 본인이 연로하여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대답을 하여 필요한 답변이 불충분 한 경우 등이 있었음.

와 같이 기법에 있어서 원형의 고수를 강조하였다(전문가 D, F).

다음으로 공간배치와 구성측면에서 한옥은 열려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와 인간적 스케일로 짓는 것(전문가 A, C)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생활과 자연과의 순환체계를 강조하면서 마당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순환되는 마당, 다용도로 사용하는 마당으로서의 의미를 한옥의 핵심으로 보았다(전문가 C, E).

한편, 외적인 형태와 시대에 관계없이 한반도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을 총칭하되,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방식에 맞는 공간구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거건축으로 보기도 하였다(전문가 G). 즉, 한옥에 맞는 생활방식이 있으며, 현대의 아파트를 놓고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한옥이지만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양옥이 된다는 것으로 현대의 생활양식과 한옥과의 필연적인 부조화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B)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나 지식이 부족하여 한옥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신라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데서 연유하고 역사의 변화 속에서 100년 정도를 그냥 놓쳐버린 거죠"

(전문가 D) "한옥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구법을 개발하는 지양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자연환경 조절체제 같은 것은 살려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 F) "좁은 의미로는 살림집, 넓은 의미로는 전통기법에 의해 지어진 사찰과 궁전까지 포함하는 것...현대화가 되더라도 한옥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

2) 전통한옥의 장점

전통한옥을 현대사회의 실용적인 현대건축에 적용할 경우 반드시 살려야 할 장점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옥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거주자의 만족감이나 기억에 기반을 둔 푸근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한옥의 건축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집을 짓는데 있어 터를 닦은 뒤 건물이 존재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소통,

인간과 자연이 관계하는 방식(전문가 B, C, D, E, F, G)이 언급되었다. 즉, 집과 땅, 삶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뒤 여기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얹히도록 하는 점, 원래 지니고 있는 본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전문가 B). 이는 단순한 실내장식과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는 것에 대한 유연한 수용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여유로운 정신과 철학적 관념은 건축물에 녹아들게 된다는 것이다(전문가 E). 한옥의 내외부 공간 중 마당은 현대의 거실보다 다기능적이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전문가 A, C).

다음으로 재생과 보수가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들었는데, 목재나 창호지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자재와 천연색채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전문가 A, D, F, G), 나무와 흙, 창호지로 인해 외부가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며 실제로 환절기에 완충작용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외기를 조절하고, 과학적으로도 통풍이나 축열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A, B).

한옥의 공간체계 또한 중요한 특성으로 규정되었다. 즉 지상에 배치되고 자연으로 열린 적절한 규모의 마당을 비롯한 외부공간의 구획, 이를 중심으로 그보다 높고 밝은 대청, 좁고 어두운 방의 다소 느슨한 순위적 공간체계와 내외부 공간의 형성과 쓰임 등은 모든 것이 균등한 아파트와 비교되는 대비개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가 안정감을 제공하고(전문가 A, C, D, G), 공간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절과 에워싸임이 적절히 보호받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서, 공간구성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안락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전문가 C, D).

그 밖에 서양의 모듈러방식이 아닌 휴먼스케일의 개념(전문가 D, E, G), 즉, 자연에 사람이 머문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과장되지 않은 공간스케일, 그리고 생활문화적인 콘텐츠가 언급되어(전문가 C, F), 이웃과의 소통, 개인적으로 축적된 이야기와 생활습관이 존재하여 시간의 깊이와 주거문화가 투영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전문가 A) "나무와 벌레가 많다는 것은 산소가 많고 생물체가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말이죠. 지상배치와 마당이 있는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마당은 현대의 거실보다는 더 다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전문가 B) "세상이나 자연을 파괴해서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원래 지니고 있는 본성을 살리고 거기에 칼을 대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가치관...”

(전문가 C) "오랫동안 자연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왔어요. 즉, 자연이 안락한 것이 아니라 거칠은 자연에 안락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당과 같이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유리벽의 경계에서 느끼는 괴리감과 달리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내다보는 가까운 세상인 거죠.“

(전문가 D) "좌식을 바탕으로 하는 천장높이, 머름높이 등...주거 내에서 유용한 양식은 좌식은 위생적이고 가변적이 됩니다.“

(전문가 E) "어울림이 중요해요. 8자 길이를 240센티라고 한다면 성인이 누워서 잠자면서 베개 놓는 공간 등을 합치면 딱 맞는 공간이에요. 그 외 창호 높이나 천장고 등도 모두 표시되지 않지만 철저하게 인간스케일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 흙, 돌과 같이 채생과 보수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친환경성,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한 시대정신, 성리학, 불교, 도교 등 건축물에 녹아있는 철학적 비례와 조화, 편안하게 구부러지고 약간 틀려도 책잡지 않는 분위기, 하지만 전체를 놓고 그 분위기를 감상하는 여유로움...”

3) 한옥의 비실용성에 대한 의견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주로 언급되는 불편함, 비실용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우선 한옥은 불편하지 않으며(전문가 A, B), 예전의 화장실과 부엌, 추위 등의 불편요소는 현대에서 적절한 재료(유리와 벽)의 사용과 기술로 해결되는 사항으로 보았다.

한옥의 불편한 점으로는 추위, 방음, 차음, 단차, 긴 동선, 좌식생활, 가사노동의 증가, 수납공간의 부족, 대지의 비효율적 사용이 언급되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옥에서의 생활양식을 수용해야 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하였다(전문가 C, E, F, G). 한옥은 소통과 개방, 외부와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추위나 방음의 취약성이 불가피하며, 더 큰 문제는 짓는 사람에 의해 그 성능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수직적 팽창을 고려한 2층 한옥의 대중화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전문가 C, E).

(전문가 A) "밀도측면에서 매우 비정서적이고 획일적인 아파트와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벽체의 단열은 유리벽을 잘 섞어서 시공하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B) "목재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명이 매우 길어요. 80년 생장기에 길면 400년 정도의 수명인데, 이것은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옥의 불편함 보다는 한옥의 건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

(전문가 C) "추위와 단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직접 생활을 해보면 대청은 추울 필요가 있는 장소거든요.“

(전문가 E)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몸이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가림과 단절을 기본으로 하는 소통과 개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문가 G) "근본적으로 불편하게 살기의 철학이 없기 한옥은 그저 창백한 전통에 불과합니다.“

4) 소결

1차 조사에서 한옥 실무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한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건축구법과 요소, 공간구성, 생활방식과 문화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았다.

그 핵심단어를 나열하면 목조가구결구식, 기와지붕, 마당, 친환경소재, 인간적 스케일, 자연과의 순환체계, 고유 생활방식, 전통 정신, 기법적 원형 등이다. 이들은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장점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들었으며 이를 가져오는 건축요소와 그 내재적 가치를 정리하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빗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규정되고 있다.

〈표 3〉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 한옥의 건축요소-전문가 조사-

한옥의 건축요소		내재적 가치
자연과의 소통	마당, 차경, 단순한 실내장식, 다듬지 않은 자재	집/땅/삶의 관계성, 다기능성, 유연성, 여유로운 정신과 철학적 관념
친환경 재료	나무, 흙, 종이, 천연색채	심신의 편안함, 생태적 건강성, 외부와의 간접적 접촉 및 완충작용, 통풍 및 축열과 같은 과학적 기능성
공간체계	지상배치, 마당->대청->방으로 이어지는 느슨한 순위적 공간체계, 내외부 공간구획, 분절과 예외 싸임	개방성, 관계성, 배치와 규모의 안정감, 보호받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안락함
휴먼 스케일	비례, 기단, 인체기반 공간치수	안정감, 위생성, 인간에 대한 배려, 조화, 가변성
문화 콘텐츠	서화, 주련	시간의 깊이, 개인적 주거문화의 축적 및 투영, 시대적 정신, 이웃관계

〈표 4〉 한옥의 불편한 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개선책

한옥의 불편한 점	전문가 의견	개선책
추위/단열	현대건축재료를 일부 사용, 공간별로 추울 필요가 있는 장소가 있으며(예: 대청), 획일적/비정서적인 현대건축물의 단열성능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공간과 환경의 열악함은 현대건축재료의 일부 사용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부도입, 공간 활용으로 보완 가능
방음/차음	한옥의 소통/개방성 측면에서 수용필요	한옥의 본질인 소통과 개방성, 소박한 생활양식, 움직임에 대한 거주자의 수용이 필요
부족한 수납공간	블박이 수납장,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수납공간으로 해결 가능, 한옥의 소박한 생활양식과의 협의 필요	
불편한 공간사용 (긴 동선/단차/ 좌식생활/ 가사노동의 증가)	배리어 프리 개념의 부분적 도입 등 현실적 변화가 필요, 불편하게 살기의 철학이 한옥의 기본.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음	

여 <표 3>에 나타났다.

한편, 한옥의 불편한 점으로는 추위, 방음/차음, 부족한 수납공간, 불편한 공간사용이 언급되었는데<표 4 참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대의 설비와 재료로 부분적으로 해결가능 하지만, 한옥 고유의 소통과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여 아파트와 같이 폐쇄된 구조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생활방식과의 충돌을 어떻게 완충시켜 나갈 것인가 향후 한옥 대중화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 판단된다.

2. 도시한옥 거주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거주한옥 개요

서울의 북촌한옥마을에서 11명, 전주 한옥마을에서 13명, 총 24명의 면접결과가 본 조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서울의 5명과 전주의 1명이 비주거용도의 한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전체 24명 중 여성이 17명으로 많았고, 60대 이상의 거주자가 11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의 가족형태를 띠고 있었다. 거주연수는 20년 이상이 10명이었고, 이중 7명은 해당 한옥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의 7명 정도가 한옥 외의 다른 주거형태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으며, 공실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의 한옥 중 주거는 대부분 살림집이었으나 민박 등 숙박을 겸하고 있거나, 개인 혹은 가내수공업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가게 등의 상업공간이 부수적으로 있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주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문화, 작업, 숙박시설이 있었고, 그 외 사무와 의료시설, 공공시설이 있었다. 건축면적은 거주자

〈표 5〉 면접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		주거(n=18)	비주거(n=6)	빈도(%)	
		전체(N=24)			
지 역	서 울	6(33.3)	5(83.3)	11(45.8)	
	전 주	12(66.7)	1(16.7)	13(54.1)	
성 별	남	3(16.7)	4(66.7)	7(29.1)	
	여	15(83.3)	2(33.3)	17(70.8)	
연 령	30대	1(5.6)	1(16.7)	2(8.3)	
	40대	3(16.7)	2(33.3)	5(20.9)	
	50대	4(22.2)	2(33.3)	6(25.0)	
	60대	3(16.7)	1(16.7)	4(16.7)	
	70대 이상	7(38.9)	-	7(29.2)	
거주자 수	1명	2(11.2)	1(16.7)	3(12.5)	
	2~3명	10(55.6)	1(16.7)	11(45.8)	
	4~5명	5(27.8)	1(16.7)	6(25.0)	
	6명 이상	1(5.6)	3(50.0)	4(16.7)	
거주년 수	1년	4(22.2)	1(16.7)	5(20.9)	
	4년	2(11.2)	3(50.0)	5(20.9)	
	6~10년	2(11.2)	2(33.3)	4(16.7)	
	20년 이상	10(55.6)	-	10(41.7)	
다른 주거형태 거주경험	있음	아파트	7(38.9)	2(33.3)	9(37.5)
		연립	1(5.6)	3(50.0)	4(16.7)
		단독	3(16.7)	1(16.7)	4(16.7)
		없음	7(38.9)	-	7(29.2)
	공실임대	3(16.7)	-	3(12.5)	
주용도	주거	살림집	11(61.1)	-	10(41.7)
		+ 숙박	4(22.2)	-	5(20.9)
		+ 작업	2(11.1)	-	2(8.3)
		+ 상업	1(5.6)	-	1(4.2)
		문화(주거복합)	-	1(16.7)	1(4.2)
	문화(주거복합)	작업(주거복합)	-	1(16.7)	1(4.2)
		사무	-	1(16.7)	1(4.2)
		의료	-	1(16.7)	1(4.2)
		숙박(주거복합)	-	1(16.7)	1(4.2)
		공공	-	1(16.7)	1(4.2)
		건축면적	49㎡ 미만	3(16.7)	1(16.7)
49-65㎡ 미만	8(44.4)		-	8(33.3)	
65-97㎡ 미만	4(22.2)		-	4(16.7)	
97-129㎡ 미만	3(16.7)		3(50.0)	6(25.0)	
129㎡ 이상	-		2(33.3)	2(8.3)	

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 해당 한옥의 주소
를 가지고 건축대장을 열람하였으며, 그 결과 65㎡ 미
만(구 20평형)의 한옥이 12사례로 반수를 차지하였다.

비주거는 다소 넓은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2
채를 사용하는 사무시설과 지역 공공시설은 129㎡ 이상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

① 한옥 생활의 동기(복수응답)

주거의 경우 거주연수에 따른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연수 10년 이하(8명)와 20년 이상(10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옥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동기로 가장 많았던 것은 “계속 살아왔었음”이었다. 특히 거주연수 20년 이상 한옥거주자들에게 한옥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장 익숙한 생활터전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녀의 교육, 직장 등에 의해 잠시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시 한옥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한옥의 현대화 사업을 생각할 경우 최근 한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그룹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주연수 10년 이하인 경우 한옥생활의 동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개인의 선호취향이나 오래 전부터의 소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어려서의 추억 등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인식된 이미지가 한옥생활의 동기가 되었다. 즉, 최근 현대인들이 한옥 생활을 선택하는 초기 동기는 경험에 의한 만족감의 기억, 그리고 간접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비주거는 주로 개인의 선호취향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업과 관련하여 한옥 생활을 선택하였는데,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나 전통기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회사차원에서 기존공간의 확장을 필요로 하면서 한옥에서의 작업을 고려하게 된 경우였다. 전체적으로 한옥생활의 동기는 익숙함, 선호취향, 동경의 대상, 심미성, 개인적 필요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표6 참조>.

“획일적 분위기의 아파트보다 한옥을 선호하는 개인 취향이 있었어요.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었구요. 지금 남편과 이 동네에서 연애를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주거, 여, 31세, 서울, 1년 거주)

“어려서부터 한옥에서 살았어요. 중간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데 갔다가 자연과 접하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주거, 56세, 전주, 40년 거주)

② 한옥 선택 및 관리, 개조 시 고려한 사항(복수응답)

현재의 한옥을 선택할 때 혹은 수리하거나 개조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표 7 참조>. 전통적 자재나 건축방식을 고려한다든지, 반대로 재료 및 설비의 현대화를 우선순위로 생각한 경우가 대조를 이루었다. 그 밖에 공간의 확장과 사용자 작업특성에 따른 공간의 재구성 등 현대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변경에 중점을 두었다. 비주거의 경우 초기부터 한옥 선택에 일정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자재나 전통 건축구조의 고수를 중요하게 여겼고, 한편, 전통방식과 현대 작업방식과의 연결을 위한 사용자 작업특성에 대한 고려

〈표 6〉 한옥에서의 생활을 생각한 동기

한옥에서의 생활 동기	주거			빈도(%)
	①(n=8)	②(n=10)	비주거(n=6)	전체(N=24)
계속 살아왔었음	3(37.5)	8(80.0)	1(16.7)	12(50.0)
결혼으로/가족구성의 변화	1(12.5)	3(30.0)	1(16.7)	5(20.8)
개인의 선호 취향	2(25.0)	-	3(50.0)	5(20.8)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사업	2(25.0)	-	2(33.3)	4(16.7)
오래전 소원	3(37.5)	-	-	3(12.5)
직업특성 관련	-	-	2(33.3)	2(8.3)
어려서의 추억	2(25.0)	-	-	2(8.3)
한옥보존지구	1(12.5)	-	-	1(4.2)
한옥마을 분위기	1(12.5)	-	-	1(4.2)
한옥의 미적인 아름다움	1(12.5)	-	-	1(4.2)
직장과 근접	1(12.5)	-	-	1(4.2)
건강문제	-	1(10.0)	-	1(4.2)

① 거주연수 10년 이하, ② 거주연수 20년 이상 (이하 표에서는 생략)

<표 7> 현재 한옥의 선택 및 관리, 개조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세부내용 및 요소	빈도(%)		
		주거 ①(n=8)	주거 ②(n=10)	비주거 (n=6) 전체 (N=24)
전통 방식	전통자재/자연재료의 사용, 전통건축방식의 고수, 전통적인 외관과 조화되는 의장/소품	2(25.0)	3(30.0)	6(100.0) 11(45.9)
재료 및 설비의 현대화	시멘트벽, 벽돌벽, 단열공사, 난방방식/부엌의 현대화, 유리문	1(12.5)	8(80.0)	9(37.5)
공간의 확장	대청 없앰, 방의크기/천정높이 조절, 공간 확장, 처마연장	1(12.5)	6(60.0)	7(29.2)
사용자 작업특성	지하 작업실, 지하연결 계단, 마당의 사무실화, 갤러리 공간, 천장다락(충분한 수납)	1(12.5)	1(10.0)	4(66.7) 6(25.0)
풍수	집터	2(25.0)		1(16.7) 3(12.5)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혼합	흙벽+양옥식 공간배치, 전통적 외관과 침단설비	1(12.5)		1(16.7) 2(8.3)
자연과의 소통	전면유리, 홀문, 간접조명/채광중심			1(16.7) 1(4.2)
공간의 연결	내부동선연결	1(12.5)		1(4.2)

도 있었다. 거주연수 20년 이상 한옥 거주자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대부분 부엌이나 화장실 설비의 현대화와 단열공사, 유리, 시멘트, 벽돌 등 현대적 재료의 사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좁은 공간을 보충하기 위해 대청을 없애거나 처마를 연장하고 방의 크기를 넓히는 등의 공간의 확장이 많았다. 거주연수 10년 이하의 경우 다양한 내용이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풍수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한옥을 현대와는 다른 정신적 관점의 주거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철학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전통한옥이 현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구조, 가구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전통 건축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관된 정신철학을 적용하되,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는 공간의 확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자체를 2~3년 정도 생각하고 지었어요. 원래 나무건조기간을 1년은 잡아야 하거든요. 한옥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나무를 충분히 안 말려서 문틀이 다 어긋나는데 있어요. 또 이사 와서도 살면서 또 부분 부분 고치고...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어요”(비주거, 여, 53세, 서울, 1년 거주)

“식구가 많으니까 공간 활용에 가장 중점을 뒀고, 다음

으로는 전통의 표현...나무와 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유리문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처음에 유리문으로 해줘서 한지로 다시 발랐어요. 통풍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주거, 남, 45세, 전주, 4년 거주)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단열공사하고...방 사이 벽에만 스티로폼 대고, 방 면적 확장해서 마당이 좁아졌죠. 화장실 안으로 들이고, 비만 오면 잠기니까 기단높이 올리고....주방은 아직도 저 아래 있잖아요(바닥차를 이야기함)”(주거, 여, 56세, 전주, 40년 거주)

③ 한옥생활의 장점(복수응답)

한옥생활의 장점에 대한 거주자 의견을 한옥생활의 심리사회적 측면(31건)과 시각적 측면(23건), 그리고 기능적 측면(30건)으로 구분하여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결과와 같이 시각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심리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거주자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3가지 장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기의 자연 순환과 같은 주거환경의 자연조절 기능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13건), 지상배치로 인한 안정감(11건), 하늘과 땅, 흙, 나무 등의 자연환경(9건), 외부와 유기적 관계로 인한 시각적 개방

〈표 8〉 한옥생활의 장점

한옥생활의 장점			빈도(%)			
			주거		비주거	전체
세부내용 및 요소			①(n=8)	②(n=10)	(n=6)	(N=24)
심리 사회적 측면	안정감	골목 깊은 곳에 위치, 지상배치, 나무소재	3(37.5)	5(50.0)	3(50.0)	11(45.9)
	심리적 여유	자연재료, 텃마루	2(25.0)	1(10.0)	2(33.3)	5(20.8)
	이웃문화	보안, 열린 공간 : 자연스러운 교류	2(25.0)	2(20.0)	1(16.7)	5(20.8)
	자연체험	마당, 열린 공간 : 계절, 날씨의 변화를 느낌	3(37.5)	1(10.0)	-	4(16.7)
	역동성	한옥의 불완전성 : 항상 몸을 움직여야 함	1(12.5)	1(10.0)	-	2(8.3)
	스토리텔링	한옥의 소박성, 불완전성 : 개인과 가족만의 히스토리 누적	2(25.0)	-	-	2(8.3)
가족관계의 진전	좁은 면적 : 부대낌	1(12.5)	1(10.0)	-	2(8.3)	
시각적 측면	자연환경	하늘, 흙, 나무, 땅	2(25.0)	6(60.0)	1(16.7)	9(37.5)
	개방성	창호 : 들어열개, 형태, 넓어 보임, 외부와 유기적 관계	1(12.5)	4(40.0)	3(50.0)	8(33.3)
	심미성	서까래, 들어열개문, 구조, 공간구성(채움과 비움의 조화), 자연미, 정원, 전통미, 곡선, 나뭇결	3(37.5)	1(10.0)	2(33.3)	6(25.0)
기능적 측면	환경조절	공간구성, 자연재료 : 공기의 상쾌함/시원함, 탈취, 자연 순환	4(50.0)	5(50.0)	4(66.7)	13(54.2)
	신체적 건강	자연재료 : 각종 질병예방(감기, 관절염, 피부병, 만성두통, 비염)	2(25.0)	2(20.0)	4(66.7)	8(33.3)
	공간 활용	마당 : 놀이/낮잠, 풀장, 꽃밭 가변성 : 해체와 조립과 용이함	2(25.0)	2(20.0)	1(16.7)	5(20.8)
	가사작업	마당, 텃밭	-	4(40.0)	-	4(16.7)

성(8건) 및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8건) 순으로 한옥의 장점을 들었다. 심리사회적 측면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돈독한 가족 및 이웃관계, 자연체험에서 오는 만족감 등이 언급되었고, 시각적 측면은 자연환경과 개방성 및 심미성이, 그리고 기능적 측면으로는 자연조절기능, 건강성, 다용도 및 용이한 가사작업을 장점으로 들었다.

거주연수 10년 이하 한옥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심리사회적 측면의 장점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그 중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한옥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했고, 시각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현대 건축물과 차별되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생각하였다. 20년 이상 한옥거주자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주로 지적하면서 한옥의 아늑함과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가사작업의 용이성을 장점으로 들었다. 비주거의 경우 한옥공간과 기능성에 대한 풍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의 자연조절과 한옥의 신체적인 건강성, 그리고 시각적 개방성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현대인의 한옥에 대한 인식결과와 비교하여 심리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이미지가 더 강조되었으며, 한옥의 건강성과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강조된 것은 비슷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결과로 언급되었던 한옥 거주자의 한옥에 대한 태도 중 상품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인식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한옥의 세부요소인 자연환경, 재료, 공간구성 및 체계, 문화컨텐츠가 대부분 장점으로 나타났고, 반면 일반인이 다소 인식하기 어려운 휴먼스케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연재료가 심성을 순화하는 것 같고, 공기가 순환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한옥이 빈공간이나 여백, 침묵이 마음에 들어요. 채움과 비어있음이 적절

한 공간레이아웃도 좋고...”(비주거, 남, 41세, 전주, 8년거주)

“한옥생활 하면서 가족관계가 좋아졌어요...아마 가족이 공동으로 해야하는 작업이 많아서가 아닐까...정원도 가꿔야하고 한옥이 부분부분 보수할 때가 많으니까...또 좁아서 아무래도 붙어서 생활하니까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동네주민과 친밀한 문화도 마음에 들고...한옥은 불편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주거, 여, 47세, 서울, 1년 거주)

“흙이 있고, 꽃이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산이 있고, 경치가 좋아요. 동생이 그러는데 입구부터 공기가 다르대요. 김장할 때나 그럴 때 저런데다(마당) 펼쳐놓고 할 수도 있고...”(주거, 여, 58세, 전주 30년거주)

④ 마음에 드는 공간(복수응답)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옥에서 마음에 드는 공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마당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11건), 다음으로 안방(방), 대청의 순이었다. 마당은 다양한 행사나 놀이장소, 운동 공간 등으로의 공간 활용 측면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안방은 편안함과 나만의 공간이라는 프라이버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청은 계절적 취약점의 보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사

이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천장구조의 미적인 아름다움 등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었다. 마당과 안방, 대청은 현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인식하는 한옥의 공간으로 이의 현대화에 있어 반드시 각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연수별, 혹은 주거용도별로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표 9 참조>.

“흙 냄새 나는 마당, 자연과 함께하는 동네와 소나무길...이런 게 너무 좋아요. 추위라든가 이런 건 아이디어로 다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비주거, 여, 46세, 서울, 10년거주)

“이 거실 겸 안방이 가장 좋아요. 나만의 공간이라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마당은 달과 별을 직접 보고 마루에 앉아서 낮은 담 밖으로 보이는 경치 구경하고 동네에 실개천도 너무 좋고...”(주거, 여, 53세, 전주, 6개월 거주)

“거실 천장에 구조노출이 멋있고, 겨울에 햇빛 들어오고 여름에 시원하고...제일 좋지.”(주거, 여, 71세, 서울, 20년거주)

⑤ 한옥에서 생활의 단점(복수응답)

한옥생활의 단점은 주거환경, 공간, 동네,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표 10 참조>. 전체적으

<표 9> 마음에 드는 공간

공간 혹은 부분	세부내용 및 요소	빈도(%)			
		주거 ①(n=8)	비주거 ②(n=10)	비주거 (n=6)	전체 (N=24)
마당	다양한 활용, 정원, 자연(공기, 달, 별, 흙), 담 밖의 경치, 나무, 그늘	3(37.5)	4(40.0)	4(66.7)	11(45.9)
안방(방)	편안함, 온화함, 나만의 공간, 아궁이, 온돌, 천장을 통해 보이는 하늘	3(37.5)	2(20.0)	2(33.3)	7(29.2)
대청 (거실/마루)	기능성(여름에 시원, 겨울에 햇빛 들어옴), 편안함, 사이성, 대들보의 아름다움	2(25.0)	3(30.0)	1(16.7)	6(25.0)
화장실/욕실	창을 통해 마당이 보임, 아늑한 빛	1(12.5)	-	1(16.7)	2(8.3)
동네	소나무, 분위기, 경치, 실개천	1(12.5)	-	1(16.7)	2(8.3)
창호	대문-보는 순간 편안해짐, 문이 많아 기능적으로 마음에 듭	1(12.5)	1(10.0)	-	2(8.3)
부엌	싱크대 수작업	-	-	1(16.7)	1(4.2)
테라스	경치	-	-	1(16.7)	1(4.2)
계단	다양한 색채의 식물	-	-	1(16.7)	1(4.2)
전체 이미지	조화로움	-	-	1(16.7)	1(4.2)
다락	수납	1(12.5)	-	-	1(4.2)
잘 모르겠음	-	1(12.5)	-	-	1(4.2)

〈표 10〉 한옥생활의 단점

한옥생활의 단점			주거		비주거 (n=6)	전체 (N=24)
			①(n=8)	②(n=10)		
주거환경	추위	3중문이 아닌 경우, 비싼 난방비, 외기와 접함, 마루에 난방이 안 됨, 많고 큰 창문으로 난방이 오래 걸림	3(37.5)	6(60.0)	4(66.7)	13(54.2)
	모기/벌레	방충망이 없는 경우	1(12.5)	-	1(16.7)	2(8.3)
	취약한 방음	방음에 취약한 문의 형태	-	-	1(16.7)	1(4.2)
	먼지	마당	-	1(10.0)	-	1(4.2)
공간	공간이용	신발 신고 이동, 긴 동선, 홑집, 가구배치의 어려움, 좁은 면적, 좁은 수납	3(37.5)	-	4(66.7)	7(29.2)
	좌식생활	낮은 소품이 발걸에 치임	-	-	1(16.7)	1(4.2)
동네	주거지역의 변질	상업시설/갤러리가 들어섬, 밤에 사람이 없음, 시끄러운 행사	2(25.0)	1(10.0)	-	3(12.5)
	편의시설의 부재	놀이시설, 편의시설, 주차의 어려움(특히 방문객)	2(25.0)	-	1(16.7)	3(12.5)
	배타적인 동네분위기	프라이버시침해, 한옥밀집으로 인한 개인주의	-	-	1(16.7)	1(4.2)
	자녀 교육	학군, 교육시설	1(12.5)	-	-	1(4.2)
유지관리	관리문제	자연재료(계절/날씨영향)의 수축 및 팽창, 회벽의 주기적 관리, 제대로 짓지 않는 경우 노후가 빨라짐, 시멘트 고려해 볼 만함	-	1(10.0)	2(33.3)	3(12.5)
	쓰레기처리	-	-	1(16.7)	1(4.2)	
	주거안전	집 비울 때 불안함	-	1(10.0)	-	1(4.2)

로 창호문제로 인한 추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는데, 많고 큰 창호와 건물자체가 외기에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난방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 등을 들었다. 특이한 점은 한옥생활의 장점으로 공간의 개방성, 외부와의 유기적 관계, 자연과의 접근성, 창호의 심미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이로 인한 추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거주연수 10년 이하의 한옥거주자는 추위를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이러한 단점을 한옥의 특성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한옥 거주자의 경우 난방비의 절약을 위해 조만간 단열공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시멘트벽으로 변환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거주연수에 따라 건물의 노후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거주연수가 짧은 거주자들은 한옥 선택의 동기인 오래전부터의 소원, 개인의 선호취향과 심리사회적 측면의 장점이 추위라는 단점을 능가하는 반면, 거주연수가 긴 사람들에게 한옥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단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부 공간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긴 동선과 공간 활용의 제한, 가구배치의 어려움, 좁은 면적 및 수납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거주연수 20년 이상의 한옥거주자는 이를 단점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였는데, 이는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불편한 동선과 좁은 면적 등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작업과 손볼 곳이 많다는 점은 오히려 앞의 내용에서 역동성이나 자아실현, 가족관계의 진전, 스토리텔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한옥생활의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거주연수 10년 이하의 거주자들은 공간이용의 문제 외에 시끄러운 행사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주거지가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과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비주거의 경우 추위, 공간 활용문제 외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한옥생활의 다양한 단점을 많이 지적한 편이었는데 이들

은 외부에 거주지가 따로 있고, 한옥에서의 숙식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대 건축물의 편의성이나 단열 기능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용이하여 안 좋은 점을 쉽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방충망이 없어서 그런지 벌레가 너무 많고 세상에 그렇게 큰 벌레는 생전 처음 봤어. 좌식생활을 하다보니 낮은 소품이 발질에 치이고...한옥도 기본 틀 옆으로 공간을 덧댈 수 있도록 허가해야 돼. 모듈화가 필요하지...”(비주거, 여, 57세, 서울, 2년거주)

“동선이 길어요. 이걸 불편하다기 보다는 그냥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면적이 좁아서 수납이 좀 힘들죠. 2층 한옥도 고려할만 해요. 시에서 매입해서 지은 한옥은 밤에 비어있으니까 한적하고 무서워요.”(주거, 여, 65세, 서울, 4년거주)

“겨울에 외풍...난방비....그것 말고는 없어요. 돈 때문에 불을 많이 못 때고 있어.”(주거, 여, 86세, 전주, 46년거주)

3) 소결

한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거주자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거주자가 한옥생활을 생각한 동기에서 거주연수 10년 이하의 거주자들

은 어려서의 추억과 오래전부터의 소원 등 과거 직간접 경험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고, 거주연수 20년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익숙함, 그리고 비주거의 경우는 한옥선택의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주로 개인의 선호, 사업, 직업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한옥의 선택 및 관리, 개조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전통재료나 건축방식, 정신철학을 고려하되, 현대적 생활양식에 맞도록 공간 이용의 편의와 설비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었다. 셋째, 한옥거주자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마당으로 다양한 활용과 자연에의 근접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프라이버시를 주는 안방, 계절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내외부 연결기능과 구조적 심미성을 가진 대청이었다. 넷째, 한옥생활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은 주거와 비주거, 거주연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이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의 자연조절과 심리적인 아늑함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세부요소로는 자연환경과 공간구성특성 및 재료의 친환경성이 있었다. 거주연수 10년 이하의 거주자는 심리사회적 측면의 장점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는데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자연의 체험이라든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는 어린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거나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마을의 분

<표 11> 한옥생활의 장단점*

대표적 장단점			10년 이하 거주	20년 이상 거주	비주거
장점	심리사회 측면	아늑함	○	○	○
		자연의 체험	○		
		스토리텔링	○		
시각적 측면		자연에의 근접성		○	
		시각적 개방성		○	○
		미적인 아름다움	○		
기능적 측면		주거환경 자연조절기능	○	○	○
		신체적 건강성			○
		용이한 가사작업		○	
단점	주거환경	추위		○	○
		공간	○		○
		동네	○		
		편의시설 부재	○		
	관리	관리문제			○

* O표는 상대적으로 강조된 장단점

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질 높은 편의시설과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한옥의 단점으로 일컬어지는 추위보다는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긴 동선과 좁은 면적 및 수납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20년 이상 한옥 거주자들은 비교적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경향이었는데, 심리적인 아늑함이나 자연환경, 환경의 자연조절 등 쾌적한 환경에 만족을 하였고, 추위를 주요 단점으로 들어 오랜 기간 거주로 인한 건물과 설비의 노후가 예측되었다. 한옥의 기능성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비주거의 경우 신체적 건강성과 환경의 자연조절 기능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단점에 대해서도 뚜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는데 추위, 공간이용, 관리문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옥 실무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옥의 장점 및 특성과 관련 요소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제 한옥 거주자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전통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의 의견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친환경 재료와 전통건축방식의 고수, 자연에 대한 태도와 그 안에 깃들여진 정신철학을 고려하고, 마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일치하였다.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룹은 어려서 한옥을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전통에 대한 선호취향이 있어 현대한옥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의 전통에 대한 선호취향과 의식, 태도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건축요소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의 공간측면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배치특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한옥의 지상배치, 과장되지 않은 공간규모, 외부의 담과 내부의 창호를 통한 적절한 개방과 폐쇄, 그리고 마당, 대청, 방으로 이어지는 순위적 공간체계와 공간간의 관계성은 거주자로 하여금 주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락감을 제공한다. 특히, 한옥의 공간 중 마당과 대청, 방은 한옥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마당의 자연환경과 다용도성, 정서적 편안함을 주는 대청의 사이성과 기후조절, 대들보의 심미성, 방의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은 공간구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한옥의 공간과 재료는 기능성과 건강성을 제공하는 대표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마당과 마루, 창호 등에 의한 내외부의 유기적 관계로 자연스러운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고, 외부와의 간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나무, 흙, 종이의 친환경 재료를 통해 통풍, 축열 성능을 더하고 질병의 예방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한옥의 자연환경은 거주자의 생활방식과 전통정신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옥생활의 장점으로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자연환경에의 근접성 외에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환경에의 체험, 즉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또한 색채나 형태, 재료의 사용 등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나 마당의 차경, 재료의 최소한 가공은 자연에 대한 소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고유의 생활방식과 정신철학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소박함과 불완전함은 스토리텔링과 여유로운 생활문화, 개인 및 가족의 히스토리를 축적해주어 확실적인 현대건축과 구별되며, 더 나아가 친밀한 커뮤니티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옥의 주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추위와 내부 공간 이용의 불편함은 일부 현대적 설비와 재료의 사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폐쇄적 구조의 건물과 비교되는 상대적 추위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거주자 조사에서 나타난 한옥생활의 장점 중 외부와의 유기적 관계, 창호의 심미성과 시각적 개방성, 관계성, 재료의 친자연성, 기능성 등은 모두 한옥의 추위나 다소 불편한 공간 동선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옥 공간체계의 기능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옥마을의 도시한옥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통한옥 보존지역의 한옥 거주자나 마을을 이루지 않은 한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와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향후 한옥의 건축요소를 적용한 한옥의 현대화 건물의

사례조사와 이들 건물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를 제안하며,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제어: 한옥, 한옥의 특성, 거주자 인식, 전문가 인식

참 고 문 헌

- 강만호, 정훈, 주석중. (2009). 생활한옥 모형개발을 위한 한옥의 의장요소 선호도 분석.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3), 99-106.
- 국토해양부. (2008). **한옥건축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기반 구축기획연구**.
- 김근영. (2003). **현대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영. (2008). 조선시대 상류주택 공간의 비물질적 표현특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3), 9-16.
- 김연정. (2000).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 (2007). 지속가능한 한옥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요자 의식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2), 101-109.
- 박성재, 정무웅. (2006). 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전통주거의 공간연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4), 119-126.
- 이성경. (2010). 한옥의 특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창재, 최일. (2010). 농촌한옥의 정주성 평가 및 한옥에 대한 인식도 비교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2), 77-84.
- 이표희. (2008).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한 학생들의 한옥 이미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 이연숙. (2007). 전통주택의 특성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1), 83-90.
- 조성진, 이연숙, 최령. (2004). 거주자 생활사례분석을 통해 본 도시한옥의 생태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4(3), 143-152.
- 진병혜. (2009). 시민과 주민의식에 기초한 역사적 생활환경의 보전가치 평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희, 김자경. (2000).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 103-111.
- 한국전통건축연구회. (2007). **한국전통건축-민가건축(상)**. 서울: 문영사.

접 수 일 : 2011. 01. 07.
수정완료일 : 2011. 02. 07.
게재확정일 : 2011. 02. 08.